

브라질, 2020년까지 에탄올 3배 확대

UNICA, 2008년 1-6월 수출 20% 증가 ... 2015년까지 330억달러 투자

브라질이 2020년까지 에탄올(Ethanol) 생산량을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브라질 사탕수수산업연맹(UNICA)이 9월1일 발표했다.

제랄디네 쿠타스 UNICA 사무총장은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에너지관련 회의에서 2008년 상반기 에탄올 수출량이 전년동기대비 20%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내수시장 소비량과 수출 수요 확대에 따라 2020년까지 에탄올 생산량이 3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체 에탄올 수출량 증가분 가운데 미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해 종래 미국시장에 집중됐던 에탄올 수출이 유럽 및 아시아권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의 에탄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수입관세로 인해 미국 수출량 증가가 예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해 1갤런당 0.54달러(리터당 0.22달러)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옥수수를 이용하는 자국 에탄올 생산기업에 대해 1갤런당 0.51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UNICA는 8월 말 발표한 자료를 통해 2015년까지 에탄올산업에 33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에서는 가솔린과 에탄올을 혼합사용하는 플렉스 자동차의 대중화 등에 따라 에탄올 수요가 급증세를 계속하면서 에탄올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Cargill, 영국 BP 등 다국적기업들도 가세하고 있다.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량은 2008년 200억리터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500억-600억리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08년 수출량도 사상 최대치인 40억-50억리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02>